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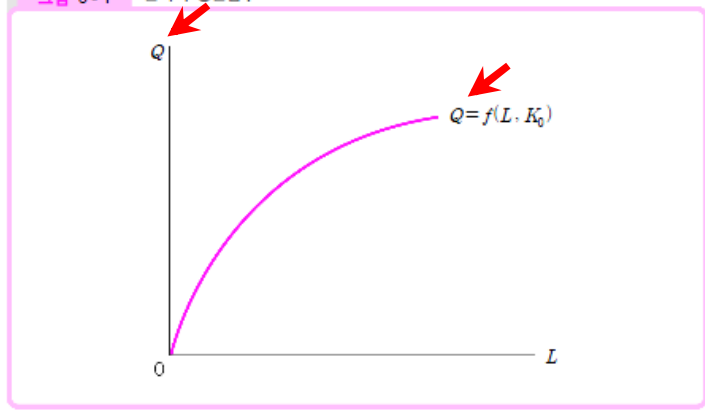
(2023년 07월 10일 기준)

<p>거시경제</p> <p>p. 228</p> <p>목차 7.4.2 의 ①</p> <p>1째줄</p>	<p>~ 부분지불준비금제도에 <u>있다고 했다.</u></p>	<p>~ 부분지불준비금제도에 <u>있다.</u></p>	<p>자구 수정</p>
<p>거시경제</p> <p>p. 325</p> <p>각주①의 날개</p> <p>내용 마지막 문장</p>	<p>실증분석 결과에 ~ 것으로 나타났다.</p>	<p>실증분석 결과에 ~ 것으로 나타났다.</p>	<p>내용 삭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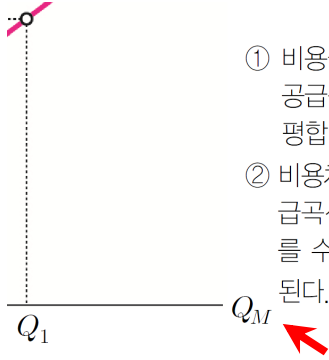
트리니티 미시, 거시경제학 제6판 1쇄 - 정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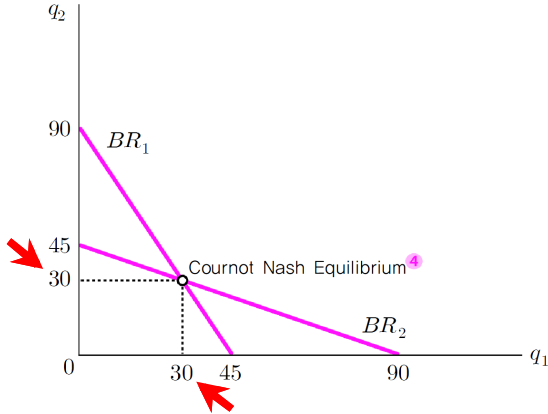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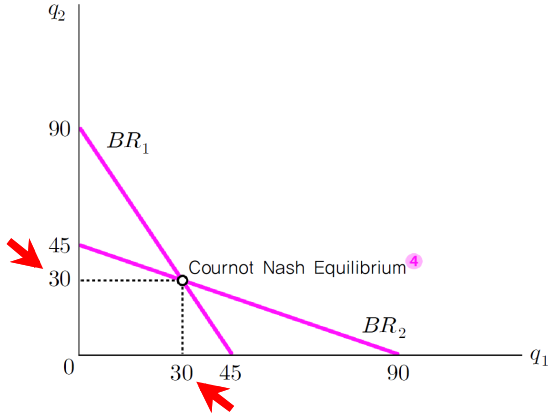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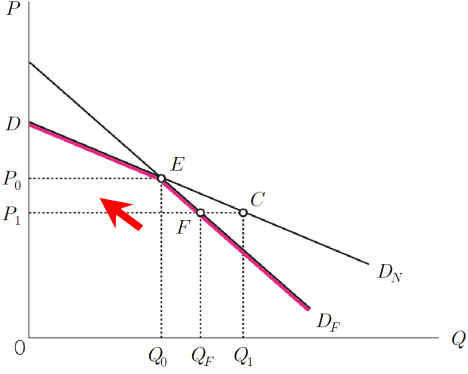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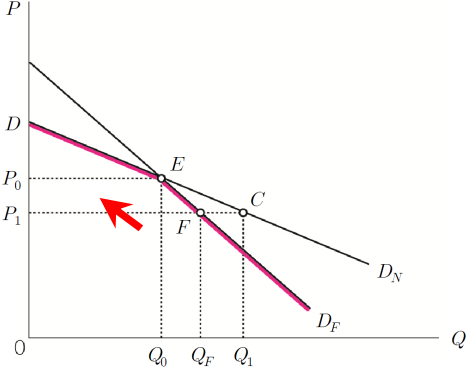
“트리니티 **미시경제학** 제6판 1쇄(2022.7.11. 발행)와 트리니티 **거시경제학** 제6판 1쇄(2022.7.12. 발행)”에서 학습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보완) 내용 및 오해의 여지가 있는 본문, 수식, 그래프 표현 등을 수정(정오)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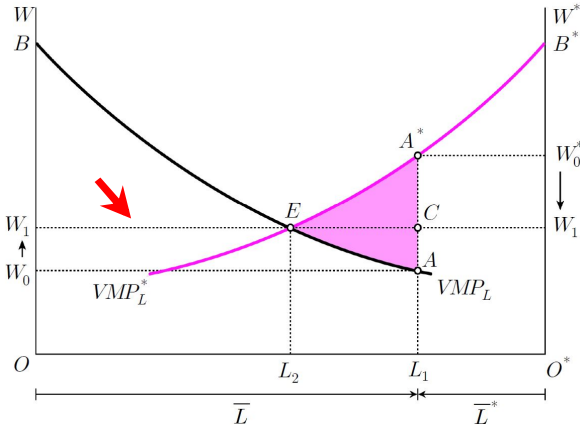
#1. 트리니티미시경제학 (제6판, 1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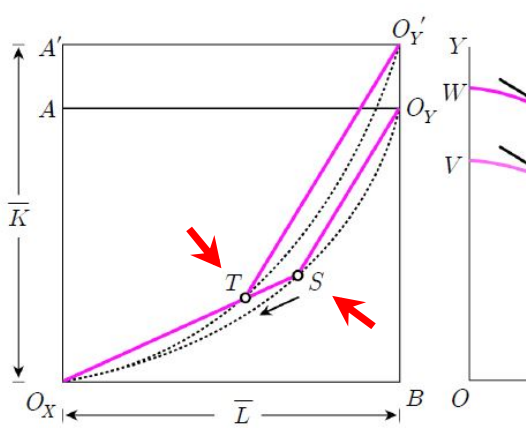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머리말, 차례> 차례 첫페이지	3-11 재분배 <u>정책</u> 과 노동공급	3-11 재분배 <u>정책</u> 과 노동공급	자구 수정
p. 85 목차 6.2.2의 ④ 1째줄	③ <u>적발확률</u> (P)를 높여야 한다.	③ <u>적발확률</u> (p)를 높여야 한다.	수식 수정 (대문자 → 소문자)
p. 103 목차 1.1의 ① 3, 4째줄 수식	단기 : L (가변요소), K (고정요소) $\rightarrow \therefore Q = f(L, \overline{K})$ ③ 장기 : L (가변요소), K (가변요소) $\rightarrow \therefore Q = f(L, K)$	단기 : L (가변요소), K (고정요소) $\rightarrow \therefore Q = f(L, \overline{K})$ ③ 장기 : L (가변요소), K (가변요소) $\rightarrow \therefore Q = f(L, K)$	수식 수정 (소문자 → 대문자)
p. 103 각주③의 날개 내용 1째줄		③ $Q = f(L, \overline{K})$: 단기의 은 주어진 시설규모하에서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함	수식 수정 (소문자 → 대문자)
p. 104 상단본문 수식 (총 4군데)	<p>1.2 단기에서 생산함수의 기술적 의미</p> <p>① 생산함수란 요소 투입량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 사이의 함수를 뜻한다.</p> <p>그림 6-1 단기의 생산함수</p>  <p>② 생산함수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제약을 나타내기도 한다.</p> <p>③ $AP_L = \frac{Q}{L}$ → TP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이다.</p> <p>④ $MP_L = \frac{\Delta Q}{\Delta L}$ → 노동 1단위를 늘렸을 때 생산의 증가량, 이는 TP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다.</p>	<p>③ $Q = f(L, \overline{K})$: 단기의 은 주어진 시설규모하에서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함</p>	수식 수정 (소문자 → 대문자)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p. 104 하단본문 수식 (총 4군데)	<p>⑤ K의 사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L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나감수록 MP_L이 체감하는 현상을 한계생산체감 또는 수확체감 현상이라고 하며, 이는 단기에 적용가능한 개념이다.❶</p> <p>1.3 MP_L과 AP_L의 관계</p> <p>① AP_L을 L로 미분하면,</p> $\frac{dAP_L}{dL} = \frac{d\left(\frac{Q(L)}{L}\right)}{dL}$ $= \frac{dQ}{dL} \cdot \frac{1}{L} - Q \cdot \frac{1}{L^2} = MP_L \cdot \frac{1}{L} - \frac{Q}{L} \cdot \frac{1}{L}$ <p>② $\frac{dAP_L}{dL} = \frac{1}{L}(MP_L - AP_L)$</p> <p>③ $MP_L > AP_L \leftrightarrow \frac{dAP_L}{dL} > 0$: AP_L의 증가 구간에서는 MP_L이 AP_L보다 크다.</p>		수식 수정 (소문자 → 대문자)
p. 105 본문전체 수식 (총 2군데)	<p>1.4 TP, AP, MP의 일반적 형태</p> <p>그림 6-2</p> <p>1.5 $C \cdot D$ 생산함수에서 MP와 AP의 도출</p> <p>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A L^\alpha K^\beta$ 이라고 하자.</p> <p style="text-align: center;">Cobb-Douglas 생산함수</p> <p>① MP_L</p> $MP_L = \frac{dQ}{dL} = A \cdot \alpha \cdot L^{\alpha-1} \cdot K^\beta$		수식 수정 (소문자 → 대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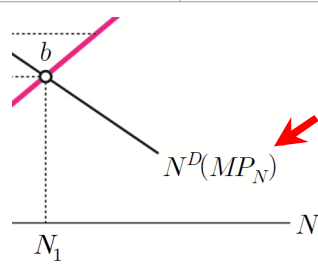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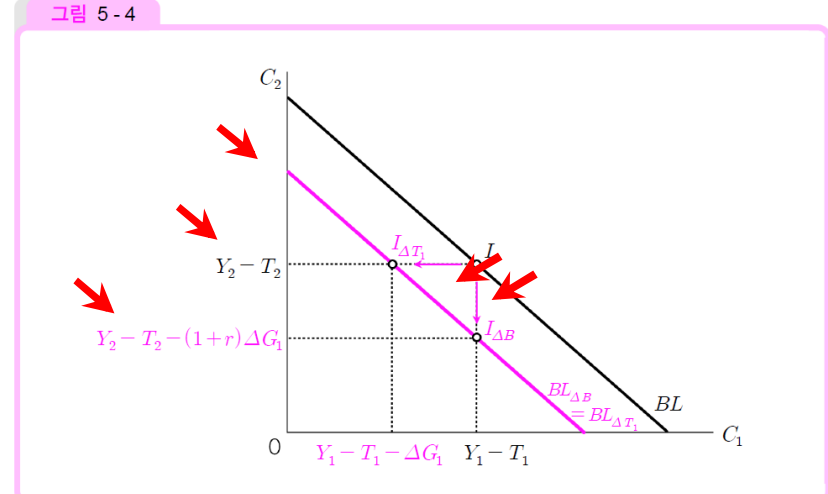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p. 106 본문전체 수식 (총 7군데)	<p>③ $AP_L = \frac{Q}{L} = A \cdot L^{\alpha-1} K^{\beta}$</p> <p>④ $AP_K = \frac{Q}{K} = A \cdot L^{\alpha} \cdot K^{\beta-1}$</p> <p>⑤ $MRTS_{LK} = \frac{MP_L}{MP_K} = \frac{\alpha}{\beta} \cdot \frac{K}{L}$</p> <p>⑥ 노동투입규모가 1% 증가할 때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할까? $Q = A \cdot L^{\alpha} \cdot K^{\beta}$ $\ln Q = \ln A + \alpha \ln L + \beta \ln K$ $\ln L$를 미분하면 $\frac{d \ln Q}{d \ln L} = \alpha$ 가 된다. $\frac{\frac{dQ}{Q}}{\frac{dL}{L}} = \alpha$: 생산량의 노동투입에 대한 탄력성</p> <p>⑦ 이와 같은 생산함수를 Cobb-Douglas 생산함수라 하며, 표준적 생산함수라고도 일컫는다.</p> <p>1.6 장기의 생산함수와 등량곡선</p> <p>1.6.1 등량곡선의 개념</p> <p>등량곡선(isoquant line)은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소투입의 궤적이다.</p>		수식 수정 (소문자 → 대문자)
p. 149 각주③의 날개 내용 6째줄	(단, $TC = NSC + SC$ 이다.)	(단, $TFC = NSC + SC$ 이다.)	수식 수정
p. 150 그림 [10-3] 그래프 수식	 <p>① 비용불변 · 공급곡선은 평행 한 S</p> <p>② 비용체증 공급곡선은 S를 수평합 된다.</p>		수식 수정 (Q_M)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159 목차 3.3.2의 ② 5, 7째줄 수식	② 위의 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당 법정조세액(T) 중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text{소비자 부담} = \frac{dP_D}{T}$ $= \frac{e_p}{e_p + \varepsilon_p}$ $\text{생산자 부담} = \frac{-dP_S}{T}$ $= \frac{\varepsilon_p}{e_p + \varepsilon_p}$ (단, $\frac{dP_D - dP_S}{T} = 1$ 이다.)	$\text{소비자 부담} = \frac{dP_D}{T}$ $= \frac{e_p}{e_p + \varepsilon_p}$ $\text{생산자 부담} = \frac{-dP_S}{T}$ $= \frac{\varepsilon_p}{e_p + \varepsilon_p}$ (단, $\frac{dP_D - dP_S}{T} = 1$ 이다.)	수식 수정 (부호 확인)
p. 169 목차 1.5.2의 ② 1째줄 수식	② 생산자 잉여는 r 만큼 감소하면서 α 만큼 증가하는데, $\beta > \gamma$ 이므로 생산자 잉여는 ~	② 생산자 잉여는 γ 만큼 감소하면서 α 만큼 증가하는데, $\underline{\alpha} > \gamma$ 이므로 생산자 잉여는 ~	수식 수정 ($r \rightarrow \gamma$ (감마)) ($\beta \rightarrow \alpha$)
p. 197 목차 3.3.3의 ① 1째줄	독점적 경쟁기업이 <u>당면하는</u> 수요는 ~	독점적 경쟁기업이 <u>직면하는</u> 수요는 ~	자구 수정
p. 202 목차 1.3.2의 ③ 마지막줄	(6-7 주제를 참고하라.)	(6-7 주제를 참고하라.)	(삭제)
p. 217 그림 [14-1] 그래프 수식			수식 및 점선 추가
p. 217 목차 2.3의 그림아래 마지막줄	균형에서 $q_1 = q_2 = 30$, $Q = 60$, $P = 40$ 이 된다.	$\text{균형에서 } q_1 = q_2 = 30, Q = 60, P = 40 \text{ 이 된다.}$	수식 값 수정
p. 232 그림 [14-12] 그래프			그림수정 (화살표 삭제)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267 목차 5.2 의 ① 3째줄	~ 미래재의 <u>가격</u> 을 P 라고 하자.	~ 미래재의 <u>가격도</u> P 라고 하자.	자구 수정
p. 270 그림 [16~17] 그래프 선 표현		직선 → 점선	
p. 313 목차 1.5.2 의 ① 1째줄	~ 경우 최적 <u>방출량</u> R^* 는 어떻게 ~	~ 경우 최적 <u>배출량</u> R^* 는 어떻게 ~	자구 수정
p. 314 목차 1.5.2 의 ③ 1째줄 수식	MCA	MAC	수식 수정
p. 330 목차 2.6.1 의 ① 6째줄 내용 및 9째줄 수식	<p>(자구 추가 : “~하여 가입한다고 가정”) (수식 <u>괄호</u> 수정)</p> <p>2.6.1 공동균형의 특징</p> <p>①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H타입(사고확률 0.5)과 L타입(사고확률 0.25)이 각각 반씩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보험회사는 평균적 사고확률</p> $0.5 \times 0.5 + 0.5 \times 0.25 = 0.375 \text{ 에 의거하여 } \frac{\text{보험료}(I)}{\text{보험금}(C)} = 0.375 \text{ 인 상품}(e \text{ 점})$ <p>을 제공한다.</p> <p>H : 반드시 가입</p> <p>L : 가입 안 할 때 보다 효용증가하여 가입한다고 가정</p> <p>e : 공동균형(이때 보험사는 정상이윤 획득한다.)</p> <p>EP (기대이윤)</p> $= 0.5 \times \{ (0.5 \times I) + 0.5 \times (I - C) \} + 0.5 \times \{ (0.75 \times I) + 0.25 \times (I - C) \} = 0$		
p. 346 목차 2.2 의 ② 2째줄	~ 투입하여 X 재와 Y 를 각각 ~	~ 투입하여 X 재와 Y 재를 각각 ~	자구 수정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p. 356 그림 [24-11] 수식 표현	$\begin{matrix} P_X = P_X^* = P_X^W \\ P_Y = P_Y^* = P_Y^W \end{matrix} \rightarrow p = p^* \xrightarrow{(2)}$ $w = w^* \quad \begin{matrix} w_X = P_X^W \cdot MPL_X \\ w_X^* = P_X^W \cdot MPL_X^* \end{matrix} \xleftarrow{(5)} L$ $r = r^* \quad \begin{matrix} r_X = P_X^W \cdot MPK_X \\ r_X^* = P_X^W \cdot MPK_X^* \end{matrix} \xleftarrow{(5)} M$		수식(첨자) 수정 (소문자 → 대문자)
p. 357 목차 3.5.3 의 ③ 1,3,5,7,9째줄 맨끝	~~~ 같아 진 .	~~~ 같아 진 다 .	자구 수정
p. 360 그림 [24-13] 그래프 수식			수식 위치조정
p. 364 목차 4.3 의 ③ 1째줄	③ 자본비용이란 개도국에 <u>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u> 들어가는 비용이고, ~	③ 자본비용이란 개도국에 <u>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u> 들어가는 비용이고, ~	내용 수정
p. 374 목차 1.2.2 의 ③ 2째줄	~ 관세율로 <u>계측하여</u> 볼 수 있다.	~ 관세율로 <u>표현할</u> 수 있다.	자구 수정

#2. 트리니티거시경제학 (제6판, 1쇄)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p. 14 각주①의 날개 내용 5째줄	~ 경직성과 화폐현상이 모두 ~	~ 경직성과 화폐환상이 모두 ~	자구 수정
p. 37 적용예제 설문박스 문제 2째줄	~ 형태는 어떠할지 설명하라. (5점)	~ 형태는 어떠할지 설명하라. (5점)	(배점 삭제)
p. 47 그림 [3-3] 그래프 수식			수식 수정
p. 72 그림 [4-2] 그래프 아래 <설명>	b 가 크면 재정정책 ~	b 가 작으면 재정정책 ~	자구 수정
p. 83 그림 [5-4] 그래프 수식	<p>(그래프 좌표값 수식 위치이동 및 표현(①, ②) 삭제)</p> <p>그림 5-4</p> 		
p. 83 목차 2.6.3의 ② 1째줄	이때, $-\Delta C_1 < \Delta G_1$ 이 상승하므로 ~	이때, $-\Delta C_1 < \Delta G_1$ 이므로 ~	자구 수정
p. 91 각주②의 날개 내용 1째줄	화폐수요를 $L = ky - hR + L_0$ 라고 ~	화폐수요를 $L = kY - hR + L_0$ 라고 ~	수식 수정 (소문자 y → 대문자 Y)
p. 95 각주⑥의 날개 내용 1째줄	이를 가리켜 제로 바운드(zero ~	이를 가리켜 제로금리(zero ~	자구 수정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p. 96 각주②의 날개내용	신용창출 경로는 ~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신용창출 경로는 ~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삭제)
p. 107 각주②의 날개 내용 3째줄 수식	~ 정의한다면 계수 α 는 양수가 ~	~ 정의한다면 계수 β 는 양수가 ~	수식 수정
p. 115 각주④의 날개 내용 3째줄 수식	$L = u_N - \frac{1}{2\lambda^2\gamma} + \frac{1}{\lambda} \cdot \pi^e + \frac{1}{4\lambda^2\gamma}$		수식 수정 (λ^2 추가)
p. 139 대표기출 [2021 외교원 제1문] 설문(2) 및 해설편 내용 수정교체	(정오표 맨 마지막에 <붙임> 참조)		
p. 146 목차 1.2.1의 ② 1째줄 후단 수식	$\textcircled{2} \quad PC: \pi = \pi^e - \beta(u - u_N) + v \quad (\text{단, } v = -\frac{1}{\lambda} \cdot \theta) \textcircled{3}$		수식 수정
p. 169 본문전체 수식 (총 5군데)	<p>3.5.1 소득의 흐름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소비보다는 저축에 영향을 준다.</p> <p>경제주체의 항상소득을 Y_t^P 라 하고, t기의 항상소득의 인식이</p> $Y_t^P = Y_{t-1}^P + \textcircled{\phi}(Y_t - Y_{t-1}^P), \quad 0 < \textcircled{\phi} < 1$ <p>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p> <p>여기서 $0 < \textcircled{\phi} < 1$ 이라는 것은 경제주체가 경험하는 실제소득의 변화분 중 일부는 임시 소득의 변화로, 나머지 일부는 항상소득의 변화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textcircled{\phi}$의 크기가 클수록 실제소득의 변화 중 항상소득의 변화로 간주하는 부분이 커짐을 나타낸다. $\textcircled{2}$</p> <p>① 일시적인 감세의 경우</p> <p>⑦ 감세정책에 의해 실제소득이 Y_0에서 Y_1으로 증가할 때 이 중에서 $\textcircled{\phi}$의 비율 만큼</p>		수식 수정 ($\theta \rightarrow \phi(\text{phi})$)
p. 169 각주②의 날개 내용전체 수식 (총 5군데)	<p>$\textcircled{2} \textcircled{\phi}$의 크기가 상수이면서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는 그 사람이 경험한 과거 소득의 흐름이라든지 직업 등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과 공무원의 $\textcircled{\phi}$는 그 크기가 사뭇 다를 것이다. 또한 $\textcircled{\phi}$의 크기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소득 변화의 원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공무원인 사람이 봉급이 인상된 경우와 복권에 당첨된 경우 $\textcircled{\phi}$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요컨대 $\textcircled{\phi}$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 사람이 경험하는 충격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수식 수정 ($\theta \rightarrow \phi(\text{phi})$)
p. 228 목차 7.4.2의 ① 1째줄	~ 부분지불준비금제도에 있다고 했다.	~ 부분지불준비금제도에 있다.	자구 수정
p. 269 목차 2.9.2의 ③ 1째줄 수식	$MP_K = \delta$	$MP_K - \delta$	수식 수정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p. 273 목차 2.9.4 의 ③, ④ 본문 수식	③ 노동자 1인당 자본량 $\left(\frac{K}{N}\right)$, 생산량 $\left(\frac{Y}{N}\right) : g_e$ 의 비율로 증가 ④ 총생산(Y) : $(n + g_e)$ 의 비율로 증가	g_e 의 비율로 증가	수식 표현 구분 (E 는 g 의 아래첨자임)
p. 317 그림 [16-24] 그림제목	$AA-DD$ 모형의 균형	$DD-AA$ 모형의 균형	수식 수정
p. 325 각주①의 날개 내용 마지막 문장	실증분석 결과에 ~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삭제

▶〈붙임〉 기본서 p. 139 대표기출 설문(2) 문제 및 해설편 p. 66 ~ 67 해설내용 교체

2021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제1문의 (1)

각 질문에 제시된 조건이 독립적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유동성선호 모형에 따르면 화폐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이러한 유동성 효과는 전체적인 효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화폐공급의 증가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도록 놔두지 않으며,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여타의 경제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공급의 증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 소득 및 기대인플레이션 효과를 수반하여 오히려 이자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 마샬(A. Marshall)과 피구(A. Pigou)로 대표되는 케임브리지 학파는 화폐수량이론을 통해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명목 GDP는 통화량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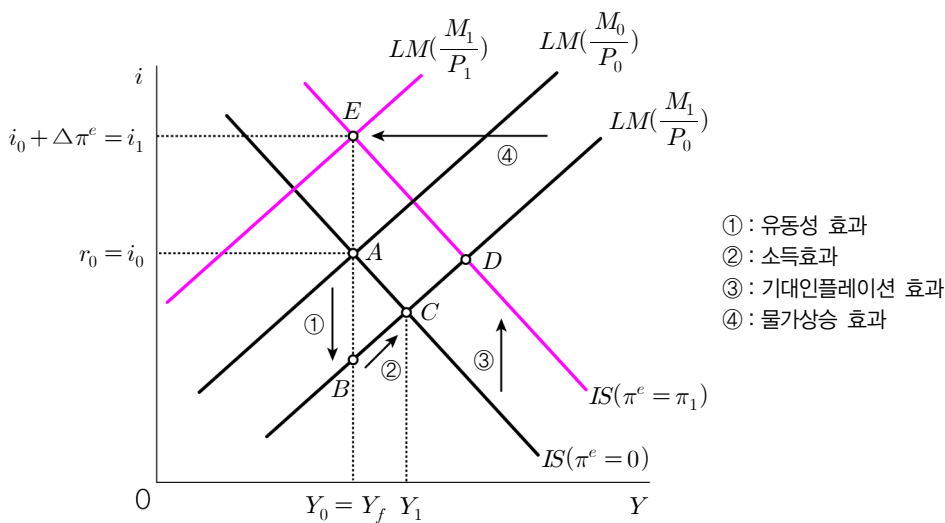
(1) 화폐공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 물가, 소득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균형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10점)

(1) 화폐공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 물가, 소득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균형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10점)

I. 설문 (1)의 해결

1. 명목이자율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그림 제1문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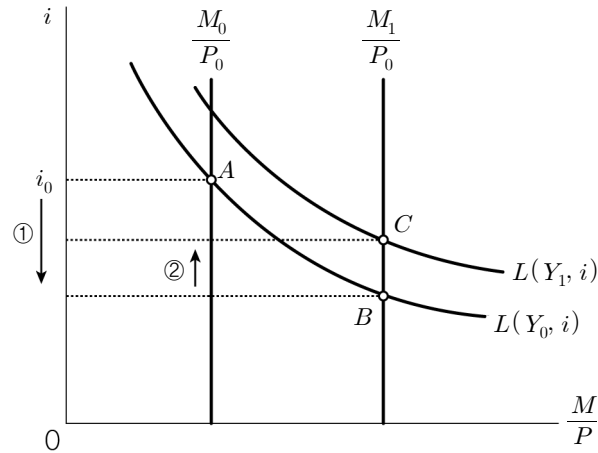


- 위의 그림에서 D의 높이는 A의 높이에 비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대표
기출

해설편
p.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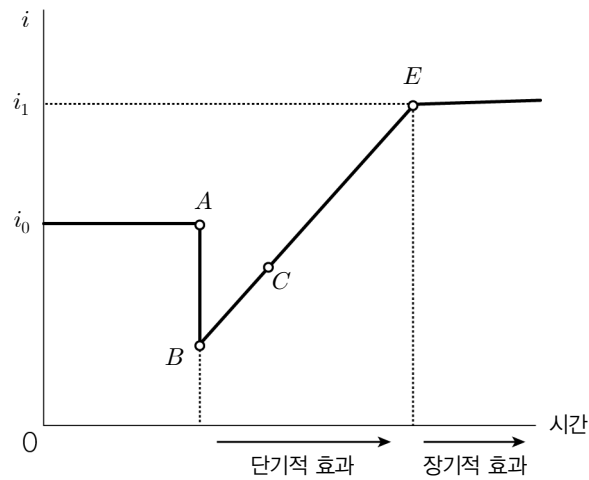
그림 제1문의 2



2. 명목이자율의 시간경로

- 피셔 관계식(Fisher equation)에 의하면 $i = r + \pi^e$ 이다. (i : 명목이자율, r : 실질이자율)

그림 제1문의 3



(1) 단기적 효과

-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경직적인 단기에는 유동성 효과에 의해 명목이자율이 하락하고, 소득효과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단,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명목이자율은 최초 수준에 비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 이때, $\Delta i < \Delta \pi^e$ 이므로 피셔 관계식에 의해 $\Delta r < 0$ 이 되며, 이를 Mundell-Tobin effect 라고 한다.

(2) 장기적 효과

-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신축적인 장기에는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특히 장기조정을 거친 후에는 명목이자율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 상승하므로, $\Delta i = \Delta \pi^e$ 이며 $\Delta r = 0$ 이다. 이를 Fisher effect 라고 한다.

#3. 트리니티거시경제학 (제6판 1쇄) - 해설편

페이지 위치	추가 · 수정 前	추가 · 수정 後	수정내용
해설편 p. 9 목차 3.의 두번째 문단 1째줄	~ 기준금리를 <u>1.76%</u> 에서 ~	~ 기준금리를 <u>1.75%</u> 에서 ~	수식 값 수정
해설편 p. 57 목차 I. 1. (1)의 두번째 문단 4째줄	<p>- 통화당국이 공표를 통해 π^e 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 공표하여 민간의 기대를 조정할 것이다.</p> $Max_{\pi^e} SW$ $f.o.c : \frac{\partial SW}{\partial \pi^e} = 0$		수식 수정
해설편 p. 59 그림 [제2문의 4] 그래프 수식	<p>그림 제2문의 4</p>		수식 오류 수정